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PAM) 창립 15주년에 부치는 글



원장 김 에스더 목사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조선선교 140년만에 너무 빨리 세속화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는 이천년 전 순수하고 소박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뿌리가 문화와 역사 속에 깊이 내리기 전에 외형적인 겉 모양에 기울어져 흔들거립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정확히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하신 복음만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동을 받아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오물이 끼었습니다.

교회가 세태에 따라 비대화되어 제도화가 되고 Mega Church가 되어 건물의 확장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 양적인 확장에 몰두하고 물질의 풍요함에 안주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전인적 영성구원과 지역사회와 국가를 살려내는 일에 둔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도취에 빠져 소명에 대한 인식이 일차적인 Original에서 두번째인 Secondary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기본적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에 바른 복음이 올곧게 세워지고 자기중심적이고 가법고 편협한 기복적인 신앙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술하게 성경공부가 많이 가르쳐졌고 쟁쟁 울려대는 설교가 크게 외쳐졌지만 이상하게도 진리가 밝히 증명되는 곳이 흐릿하고 웅장한 설교 웅변이 삶으로 와 닿는 목회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Covid Pandemic을 거치면서 현대인들은 굳이 바쁜 세상에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video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그나마 MZ 세대는 예배는 아랑곳 없이 아예 신앙을 접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급변하는 세상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새로

와 지는데 교회만이 안일하게 옛날 방식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김창길 목사님은 뉴저지장로교회를 30년 10개월 섬기다가 15년전인 2010년 은퇴를 앞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숙고 중에 그동안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미진했던 부분을 아파하며 고민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가? 말로 만이 아닌 실천하는 삶 말입니다. 이리하여 개신교수도원(Protestant Abbey Mission)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의 소명을 받고 함께 교회를 섬기다 이제 함께 개신교수도원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생활로 돌아가자. 수도원 운동입니다. 서약서를 썼습니다.

1.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기
2.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3. 하루 한 가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실천하기
4.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5. 매일 운동하기

때론 바쁘다고, 때론 잊어 버리고, 게을러서 실천 못할 때도 있었으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개신교 수도원은 산속 깊은 곳, 조용한 한적한 곳이 아니라 도시 가운데 있어 찾기 쉽고 오기 편한 곳 잠깐 머물러 기도하고, 묵상하고, 대화 나누고, 상담하고 성경읽고 편하게 왔다가 쉬고 가는 평화의 자리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가 목회에 아린 아픔을 풀고 다시 일어나 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Supervision Class 와 Lectio

Divina Class는 한달에 한번씩, 원로은퇴성직자 모임은 두 달에 한번씩 모두 50여명의 목사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수퍼 비전 월요모임은 삼사십대 목사님들 모임으로 이민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토의 진단하며 미래목회 희망을 다짐하며, 오육십대가 모이는 렉시오 디비나는 매월 책을 선정하여 읽고 발표 토의하며 오늘 나와 목회에 주는 가르침을 배웁니다. 원로성직자 모임은 정기예배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며 회원들의 목회여담을 들으며 주보에 조각글이 실리는데 조만간 책으로 묶으려 합니다. 정기예배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이민교회 후배 사역자를 위해 통성으로 중보기도합니다. 일년에 한번씩 10회째 2박 3일로 모였던 사모수련회는 협력목회자로서의 사모로, 어머니로서 사명감을 재충전하며 밤이 새도록 실컷 울며 기도하며 새힘과 새 소망을 받아 사역지로 되돌아 가곤 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수도원 chapel은 필리피노 식구들과 10년째 영어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해 매주 수도원여성성경반과 수도원 남성성경반을 줌으로 하는데 미국의 타주와 캐나다에서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PAM의 모임은 초교파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여러 교단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모여 상호 차이가 있는 신앙전통을 이해하며 목회적인 협력을합니다. 모임 후에 점심친교는 번갈아 가면서 자발적 봉사를 합니다. 이일은 누구에게 손 벌리는게 아니라 물질문제에 있어서 독립적 주체성을 보여 줍니다.

수도원의 도서관에는 2000여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고서와 역사서 미국서 보기도문 한국 기독교 서책이 있습니다.수도원에 한국기독교 이민박물관을 개관하여 유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작품,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도원 기숙사에는 10여명이 기숙할 수 있으며 유숙한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도원의 계간지가 23호로 창립 15주년 기념호로 발간합니다. 수년동안 재정적 사정으로 휴간했었습니다.

매년 수도원에서 창립기념일 예배 때에 수여하는 "경건한 목회자상"은 올해는 6번째로 뉴욕 Area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박성원 목사님께 수여됩니다. 이일은 불미스런 평을 받는 소수의 목회자들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복음전파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가끔 발생함으로 얼마나 교회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진실한 목회자가 많은지 기억하고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PAM이 펼쳐온 수도원 정신은

1. 작은 목회에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의 인기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부르심에 철두철미 충성하는 신앙의 함양에 있습니다.
2. 모든 일에 다툼이나 경쟁이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일입니다
3. 교파와 연령과 배경의 다름을 이해하고 양보하며 남을 존경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4.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5. 모든 것에 기도하는 것 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PAM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직교회가 아니라 교인도 별로 없었지만 때론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PAM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워 주신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PAM에 보내어 일하셨습니다. 본래 세계적으로 수도원 원장직은 종신제이지만 창립 원장님은 보다 새로운 개신교수도원의 정진을 위해 2019년 6월 3일에 저에게 2대 원장직을 물려 주셨습니다. 앞으로 3대 수도원장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제 2 대 원장
서울대학교 문리대 불문과(B.A.), 프린스턴 신학교(M.Div.)
예일대학교 신학부 (STM), 드루대학교 (D. Min)
미국장로교(PCUSA) Presbytery of Northeast NJ 소속 목사